

미국백인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직업소망 :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을 중심으로한 비교연구

Gender-based Differences in American Adolescents' Occupational Aspirations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전임강사 : 玉 耕 喜

Dept. of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rsity

Instructor : Kyunghee, Ok

본 연구는 미국백인 고등학생들의 성별에 따른 직업소망을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 취업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변인들이 남학생과 여학생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분석해보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 North Carolina주의 농촌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중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남학생 189명과 여학생 169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정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변인이 고등학생들의 직업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경로모형을 제시하였고 모델을 사용하여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검사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수준, 그리고 사회적 개방태도가 그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쳤으며 여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적만이 유일하게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I. 서 론

기초적 사회단위인 가족이 청소년기에 속한 자기성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래서인지 가족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그 범위가 의외로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기가 갖는 발달단계상의 이중성, 즉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극적으로 귀속하는 아동기와 가족을 주체적으로 형성하는 성인기의 중간에 청소년기가 자리잡고 있기에 청소년기를 흔히 어느 한편으로 편입시켜 연구하는 경향때문이기도 하며, 다른 한

편으로는 청소년에 관한 연구자체가 주로 그 단계내에서 이루어지는 발달특성을 밝히려는 동기에서 인지발달이라든가 도덕성발달등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 그러나 가족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점차 영·유아기와 아동기에만 국한되었던 경향에서 벗어나 노년기까지 확대되고 이에따라 가족과 관련된 변인 혹은 가족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도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발달에 관련된 가족의 영향에 관해서는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중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위획득이론(status attainment theory)은 어떻게 개인이 각기 다른 직업에 다양하게 종사하게 되는가에 의문을 품고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에게 여러가지 다양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여 주었다. 지위획득이론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은 종래에 실시되어온 제한된 연구대상이 아닌 비교적 많은 연구대상을 상대로 하거나 중단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개인의 진로발달을 연구하였고, 그 결과 부모,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직업수준이 자녀의 직업선택에 각별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이 모아졌다. 초기의 지위획득이론은 뒤이은 많은 유관연구들을 통하여 이론이 수정, 보완되면서 가족배경변인 외에도 개인의 지적능력, 부모와 또래집단 및 교사들의 영향, 학업성적 등이 미래에 종사할 직업분야를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들로서 추가되었다 (Haller & Portes, 1973).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남학생에 국한되었기에 여학생에게 연구결과를 확대하여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따르고 이를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청소년의 취업경험이라는 변인은 기존의 진로발달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관심을 자극하는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청소년은 단지 성인이 되어 참여하게 될 산업화되고 전문화된 세계에서 요구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교육과정에만 배타적으로 몰두하도록 강권되어왔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히 경제적으로 거의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는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이었고 또 그러한 존재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독자적인 사회체험기회가 몹시 제한되었고, 그것이 기성의 관련 연구분야 종사자들의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1940년대의 미국 고등학생들중 오직 4%의 남학생과 1%의 여학생만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난 통계자료가 이같은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Greenberger, Steinberg, Vaux, & McAuliffe, 1980). 그러나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고등학생들의 수요는 사회문화와 관련된 상황적

변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미국 고등학교 상급생들중 75%가 시간제취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주 평균시간량도 16시간에 이르게 되었다(Gordon, 1978). Hamilton과 Crouter(1980)가 청소년들의 시간제취업경험이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도 이같은 시대적 환경변화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이었다. Greenberger와 Steinberg(1981)도 시간제취업이 청소년의 직업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분석하면서, 연구자들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시간제취업경험에 대하여 전보다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진로발달문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직업소망(occupational aspiration)에 관한 청소년의 자기보고 내용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들의 직업소망에 관한 보고를 토대로 일반화를 시도해본다면, 청소년은 부모나 또래집단과 같이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는 주위사람의 기대수준과 이에 대한 자신의 부응의지 그리고 스스로의 비교적 객관적인 자기평가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어떤 특정한 직업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자신만의 직업소망을 형성하게 된다. 지위획득이론가들은 청소년의 직업소망이 학교를 졸업한 후 사회에서 실제로 종사하는 직업에 가장 큰 그리고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웠으며, 이를 입증하였다(Haller & Porters, 1973; Howell & Frese, 1982).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특별히 영향을 주는 변인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하나가 가족배경변인이고 다른 하나는 시간제취업에 관련된 변인이겠다.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대한 가족배경변인의 영향에 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반면 청소년의 시간제취업 참여도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시간제취업이 그들의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미흡한 형편이다. 본 연구는 미국의 고등학교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가족배경변인과 더불어 시간제취업경험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추구하고면서 연구대상 학생의 성별에 따른 차이와 이들의 직업소망간에 존재할 수 있는 상관성 또는 보다 정확히는 차별적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진로발달은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서 다른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위에서 언급된 변인들이 직업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서 그 정도와 중요성에 차이가 있다. 근래에 들어 취업여성 인구가 끊임 없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역할분화 현상과 그리고 이 성역할분화 현상이 양성의 직업선택에 지극히 현실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성역할분화가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도 영향을 미치리라는 가정은 쉽게 할 수 있다.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로 나누어 비교연구하려는 데 주목적을 두고있는 본 연구는 경로 분석을 이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직업소망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를 살펴본 후에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직업소망에 끼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성 별

Marini와 Greenberger(1978)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소망 그 자체를 놓고 비교할 때 두 집단 간에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으며 남학생의 직업소망이 여학생의 보고 결과보다 높다고 하였다. 이와는 달리 일단의 연구자들(Farmer, 1983 ; Hout & Morgan, 1975 ; Shapiro & Crowley, 1982)은 남학생보다 오히려 여학생이 더 높은 직업소망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직업지위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남학생의 직업소망이 여학생의 그것보다 높다는 결과를 보고하는 연구들(Garrison, 1979 ; Otto, Haller, Meier, & Ohlendorf, 1974)이 있는데, 이 직업소망을 직업의

다양한 분야별로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본 연구(Garrison, 1979)에 의하면 지위수준이 높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에 속하는 직업일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선호도를 보인다고 한다(Garrison, 1979). Clifford(1992)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학생의 직업소망이 전문직, 비서직, 그리고 예술분야 등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남학생은 사업, 숙련된 노동업, 군인이나 수리분야 등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이 제시하는 바는 사회에서의 성역할분화에 따라 비교적 정형화 되어 있는 직업선택유형을 청소년이 자신의 가치체계의 일부로서 내면화하여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는 사실이다(Marini et al., 1978 ; Rosen & Aneshensel, 1978).

Schulenberg, Goldstein 그리고 Vondracek(1991)에 따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업소망이 다르게 결정되는 것은 성차에 의한것이라기 보다는 그밖의 다른 요인들과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한다. 진로발달에 있어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가 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학생의 경우 직업소망과 실제로 추구하는 직업이나 직업획득이 상대적으로 보다 크게 상호괴리된 채로 이루어진다는 현실조건에다가, 여학생에게 사회화된 여성의 이미지, 즉 가정과 직장에서 주어지는 상이한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이할 수밖에 없는 역할의 이중성과 이에 따른 이중적인 책임감에서 발생하는 동요와 갈등에 기인하기 때문이라고 하겠다(Archer, 1985).

2. 가족배경

청소년의 가족은 청소년의 직업소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그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남학생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직업소망간에 정적이고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그 관계가 정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남학생만큼 긴밀한 관계는 아닌것으로 발표되었다(Banducci, 1967). Marini등(1978)은 가족배경을 좀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연구하였는데,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직업지위가 어머니의 교육정도나 직업지위보다 청소년의 직업소

망에 더 큰 영향을 주는데 이 경우 여학생에게 보다는 남학생에게 더욱 큰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가족배경이 남학생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실은 여성에게 보다 남성에게 직업성취에 대한 기대를 더 크게 걸고 있는 사회적인 요구를 남학생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사회적인 기대를 많이 느끼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가족이 제공하는 물적,인적 자원을 그들의 직업소망이나 획득에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여성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진출하여 직업을 가지게 되고 또한 결혼 후에도 계속 직업을 유지하거나 직장을 새로이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요즘에는 여학생이 인식하고 활용하려는 가족배경의 의미와 효과가 예전과 같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한 일이다.

3. 시간제취업경험

시간제취업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경험이 직업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관해서 직접적으로 고찰하고 있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주는 영향을 간접적인 변인들, 예컨대 학업성적과 같은 변인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직접 및 간접적으로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친다. 학업성적에 있어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성적이 좋지만, 학업성적이 직업소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에게 크게 나타나고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Marini등(1978)은 주장한다. Card, Steel과 Abeles(1980)도 여학생이 학업성적에서 남학생을 앞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여학생의 장래 직업획득에 있어서 그만큼 비례적으로 유리한 연관을 갖지 못한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이 장래의 직업을 획득하는데 최대한 이용된다고 주장한다.

우선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시간을 무리하게 많이 사용할때 학업성적은 떨어진다(Bucknam, 1976; Mangum & Walsh, 1977; Steinberg, Greenber-

ger, Garduque, & McAuliffe, 1982; 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 Ruggerio, & Vaux, 1982). 그러나 Schill, McCartin, 과 Meyer(1985)는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생들의 학업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으며, 같은 맥락에서 시간제취업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학업성적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고도 하였다(Bowles & Gintis, 1976; D'Amico, 1984). 다른 많은 연구들은 시간제취업이 학생들의 학업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신뢰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D'Amico, 1984; Gade & Peterson, 1980; Hay & Lindsay, 1969; Hotchkiss, 1986).

Greenberger(1983)는 시간제취업경험이 제공하는 장점과 시간제취업에 참여함으로써 얻게되는 단점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Steinberg(1982)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고등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 20시간 이상을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학업성적이 내려가고 결석횟수도 많아지며 숙제를 하거나 특별활동에 참가하는 시간량도 적어지고 가족과의 유대도 약해지는 등의 결과를 보인다.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미치는 시간제취업의 영향은 요컨대 시간제취업에 할애하는 시간량과 그에 따른 집중정도를 적당히 조절할 때에만 청소년의 진로 발달은 긍정적일 수 있으며 진로발달과정에 유익하게 작용한다.

시간제취업에 참여하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의 숫자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지만, 성별에 따른 시간제취업참여상의 차이를 살펴볼 때 두 집단 사이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Manning, 1990; White & Brinkerhoff, 1981; Yamoor & Mortimer, 1990).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남학생이 여학생과 비교해서 더욱 많은 숫자가, 보다 이른 나이에, 더 많은 시간을, 그리고 보다 많은 보수를 받고 시간제취업에 참여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Gade & Peterson, 1980; Gottfredson, 1985; Greenberger et al., 1983).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이 참여하고 있는 시간제취업의 직업특성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학생이 보다 갖추어진(for-

mal) 작업환경의 직업에 종사하는 반면에, 여학생은 보다 덜 갖추어진 작업환경에서 수행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였다(Yamoor et al., 1990). 남학생이 노동이나 기술직 등에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것에 비하여 여학생의 직업은 비서직이나 상점 점원 및 아이를 돌보는 일 등에 집중되어 있다(Greenberger et al., 1983). 발달적인 시각에서 직업특성을 고려해 볼때 여학생이 참여하는 시간제 취업이 남학생들에 비해 유용한 기술의 습득이나 창의적인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 준다고 지적되었다(Mortimer, Finch, Owens & Shanahan, 1990). 그러나 시간제 취업에 관련된 자기만족도를 비교할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시간제취업경험에 보다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낸다(Yamoor & Mortimer, 1990). 이같은 결과는 남성에게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경제적인 부양의 역할이 남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인지되어 직업과 지위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안정감 내지는 안도감을 안겨주게 되는 심리적 기제작용의 결과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시간제취업경험이 부모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면, 부모는 청소년이 시간제 취업에 참여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특히 시간제취업이 자녀들에게 독립심, 자존감, 및 책임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한다(Phillips & Sandstrom, 1990).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의 시간제취업경험에 대해서 갖는 선호도는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Peters(1987)에 따르면, 부모들이 딸의 경우에는 차라리 시간제취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고 보고하였고, 아들에게는 더욱 뚜렷한 직업의식과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기를 원하였다. 많은 연구들은 시간제취업경험이 남학생에게는 부모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 반면, 여학생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Steinberg, Greenberger, Garduque, Ruggiero, & Vaux, 1982).

III.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미국의 North Carolina주 농촌지역의 고등학교 학생들 1,481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직업소망, 일에 대한 태도, 시간제취업과 관련된 경험 등에 관심을 갖고 실시된 연구의 일부분이다. 본 연구가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학생들의 직업소망과 그에 관련된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에 주목적을 두고 있기에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는 358명만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그중 남학생은 189명이고 여학생은 169명이었다.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고등학생들이 경험하는 시간제취업과 그에 따른 그들의 학업, 가족관계 그리고 일에 대한 태도등에 발생하는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Greenberger와 다른 연구자들(Steinberg 등, 1982)이 고안한 설문지를 토대로 하여 실시하였다. 그러나 위의 설문지는 도시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어서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에게 실시되기 전에 농촌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비조사를 하였고 이 예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항목들을 보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은 다음과 같다.

1) 직업 소망: 학생들에게 “학업을 마친후 종사하기를 원하는 장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학생들의 이에 대한 응답은 Duncan이 그 직업이 요구하는 교육정도와 보수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사회경제적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점수의 분포는 6점에서 96점으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적인 직업을 의미한다.

2) 가족배경변인: 아버지의 학력은 학생들이 보고한 8점 Likert 식으로 교육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이 경우 점수가 높을수록 고학력임을 나타내며, 어머니의 직업은 어머니가 종사하고 있는 직업을 구체적으로 응답한 학생들의 대답을 Duncan의 사회경제적 척도 점수를 이용하여 환산하였다.

3) 시간제취업: 시간제취업 할당시간량은 학생들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할당하는 실제 시간수를 이용하였다. 학생들이 종사하고 있는 시간제취업의 직업특성은 학생들이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그 일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의 취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향상된 품질 혹은 서비스를 받게 되는가하는 물음에 학생들은 4점 Likert식으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4점 '확실히 그렇다' 중 하나의 항목을 표시하였다.

4) 학업참여 : 시간제취업전과 비교하여 학교활동과 관련된 학생들의 참여도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학교를 선호하는 정도와 숙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학생들이 학교를 선호하는 정도는 4점 Likert식으로 1점 '전혀 좋아하지 않음'부터 4점 '항상 좋아함'으로 측정하고 일주일에 학생들이 숙제에 쏟은 시간은 6점 Likert식으로 1점 '2시간 이하'에서 6점 '21시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5) 부모자녀관계와 학점변화 : 시간제취업후 달라진 부모들의 학생에 대한 대우는 4점 Likert식으로 1점 '부모들이 전보다 적은 자유를 준다'에서 4점 '부모들이 전보다 많은 자유를 준다'로 측정하였고, 시간제취업으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는 3점 Likert식으로 분류하였는데 1점 '시간제취업을 하고 난 후 나빠짐'부터 3점 '시간제취업을 하고 난 후 좋아짐'으로 분포되었다. 시간제취업에 종사한 후 그들의 성적변화는 5점 Likert식으로 1점 '취업후 성적이 훨씬 떨어졌음'에서 5점 '취업후 성적이 훨씬 좋아졌음'으로 측정하였다.

6) 학업성적 : 학생들의 평균학업성적은 자기보고식으로 수집하였는데 그들의 응답분포는 1점 '평균 F학점'부터 7점 '평균 A학점'에 걸쳐 이루어졌다.

7) 취미독서와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 : 일주일에 학생들이 취미로 하는 독서시간량이 6점 Likert식으로 1점 '2시간 이하'에서 6점 '21시간 이상'으로 측정하였다.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는 4점 Likert식으로 구성된 문항 4항목으로 이루어졌고 전체특점 범위는 4점에서 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른 환경에 자신을 개방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미국 동남부지방(North Carolina 주

일원)의 모든 농촌지역 고등학교 학생들을 일차대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별, 학년, 시간제취업경험의 여부, 시간제취업에 참여했다면 취업을 위한 할당시간량 등을 조사하였다. 학생들의 응답을 기초로 그들을 학년(1, 2, 3, 4 학년), 성별(남, 녀) 그리고 시간제취업의 유무 (일일하고 하지않음) 등에 따라 16개의 집단으로 분류한 후 각 집단에 해당된 학생들을 같은 비율로 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인 고등학교 학생 1,481명중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고 있던 654명이 본 연구의 연구대상이다.

가족배경변인과 시간제취업경험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하기 위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중심으로 경로모형을 세우고, 단순회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통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검사하였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을 분리하여 위에서 언급된 변인들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수정한 모델 (그림 1 참조)을 사용하여 분석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다상관관계, 단순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 및 경로분석을 이용하였으며, SPSS 중다회귀분석 절차중 설문지의 항목중 한 항목이라도 응답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분석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목록적 탈락방법(list-wise)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최종 연구대상자는 358명으로 압축되었다.

IV. 연구결과

1. 여학생 집단

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나타나 있는데 그림 1에 나타난 모델을 중심으로 각 변인들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1에서와 같이 여학생의 직업소망과 유의한 관계를 맺으리라 예상했던 어머니의 직업, 아버지의 교육정도, 학업성적, 그리고 사회적 개방 태도중에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 변인들은 아버지의 교육정도 ($r=.153$)와 자신들의 학업성적

표 1. 종다상관관계표 : 남학생 집단 (N=189) 과 여학생 집단 (N=169)

여 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279**	.100	-.063	-.176*	-.056	-.042	.165*	-.051	.153*	-.054	-.059	.131
2	.280**		.141*	-.068	-.137*	-.041	-.211**	.157*	.005	.142*	.027	.124	.153*
3	.130*	.191**		-.031	.067	.265**	-.096	.244**	.109	.057	.122	.123	.258*
4	-.043	-.115*	-.039		.303**	-.072	.202**	-.099	.009	.003	.043	.024	.022
5	-.019	-.019	.056	.256**		.149	-.042	.018	.045	.035	.045	-.022	.096
6	-.082	-.022	.175**	.033	.111*		-.195**	.116	.197**	-.005	.000	-.025	.032
7	-.085	-.118*	-.162**	.175*	.005	-.034		-.129	-.042	-.197**	.072	-.069	.070
8	.082	.073	.194**	-.017	-.012	.037	-.106*		.323**	.137*	-.056	.181*	.215*
9	.031	.146	.196**	.051	.085	-.007	-.113*	.220**		.064	-.020	.188*	.056
10	.077	.102	.069	.004	-.065	.110*	-.078	.285**	.096		-.071	.208**	-.059
11	-.061	.053	.062	.050	-.025	.015	.046	-.022	.107*	.020		-.067	.062
12	-.084	.123*	.091	-.031	.033	-.007	-.002	.110*	.204**	.155**	.219**		.025
13	.212**	.261**	.182**	-.043	-.086	-.129*	-.083	.209**	.128*	.074	.093	.207**	

* p<.05 ** p<.01

- 1. 어머니의 직업
- 2. 아버지의 학력
- 3. 학업성적
- 4. 달라진 대우
- 5. 부모와의 관계
- 6. 성적변화
- 7. 시간제취업할당시간량
- 8. 숙제시간
- 9. 학교선호
- 10. 취미독서
- 11. 직업의 특성
- 12. 사회적 개방
- 13. 직업소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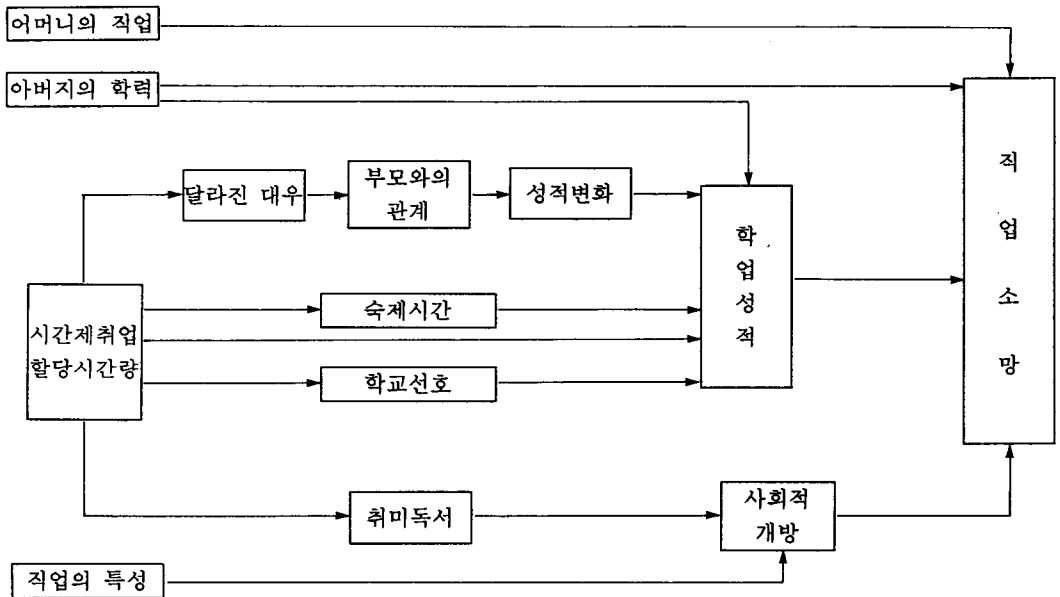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들의 직업소망에 대한 연구모형.

($r=.258$)뿐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로는 성적변화 ($r=.265$), 숙제를 하는 시간($r=.244$) 및 아버지의 교육정도($r=.141$) 등이었고 학교선호와 시간제취업할당량은 상관의 정도가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취미독서시간량과 직업의 특성이 사회적 개

방태도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으리라던 <그림 1>에서의 연구모형과는 달리 취미를 위한 독서시간량만이 사회적인 개방태도와 유의한 정적상관 ($r=.208$)을 보였다. 여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은 숙제를 하는 시간량이나 학교를 좋아하는 정도와 학업성적과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취미로 하는 독서시간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197$)을, 부모들의 달라진 대우와는 유의한 정적상관($r=.202$)을 보이고 있다. 여학생들이 시간제취업에 종사함으로써 달라진 부모들의 대우는 부모와의 달라진 관계와 유의한 정적상관($r=.303$)을 보이고, 달라진 부모와의 관계와 학업성적변화도 유의한 정적상관 ($r=.149$)을 나타냈다.

위에서 살펴본 변인들중 유의한 상관을 맺고있는 변인들만을 사용하여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여학생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는 변인은 오직 그들의 학업성적이고 직업소망에 대한 분산의 6.3%를 설명해주고 있다(표 2). 표 2가 제시하듯이 여학생의 학업성적을 예측하는 데에 아버지의 교육정도, 성적변화 및 숙제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량이 유의한 변인들로 밝혀졌다. 이 세변인들이 평균성적에 대한 분산의 6.9%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

제취업에 할애하는 시간은 부모들이 여학생에게 시간제취업에 종사하기 전보다 많은 자유를 허락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이와 같은 부모의 달라진 대우는 여학생이 부모님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을 예측하는데 유의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부모님과의 관계변화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하여 여학생들의 성적변화를 예측하였을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질 수 있었지만, 단지 성적변화에 대한 분산의 1.8%만이 부모님과의 관계변화에 의해 설명되었다.

표 2의 결과를 이용하여 여학생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변인들의 관계가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2. 남학생 집단

그림 1에 나타난 직업소망에 대한 연구모형에 준거하여 남학생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미치리라 예측되는 변인들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남학생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측되던 변인인 아버지의 교육정도($r=.261$), 어머니의 직업수준($r=.212$), 사회적 개방에 대한 태도($r=.207$) 및 평균성적($r=.182$)이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로 밝혀졌다(표 1). 남학생의 평균성적에 영향을 미칠

표 2. 단순 및 중다회귀분석표 : 여학생

(N=169)

종속변인	달라진대우		부모와의 관계		성적변화		학업성적		직업소망	
	b	B	b	B	b	B	b	B	b	B
시간제취업 할당시간량	.0217	.2021**								
달라진대우 부모와의 관계			.1734	.3032**						
성적변화					.2599	.1489*				
숙제시간							.4053	.2569***		
아버지의 교육정도							.2593	.1891**		
학업성적							.1009	.1207*		
상수									3.8736	.2583***
수정 결정계수	4.2037		1.5938		2.2772		2.7579		39.2820	
F	.0370		.0883		.0182		.1224		.0629	
F	10.6476**		25.4113***		5.6439*		12.5302***		17.5801***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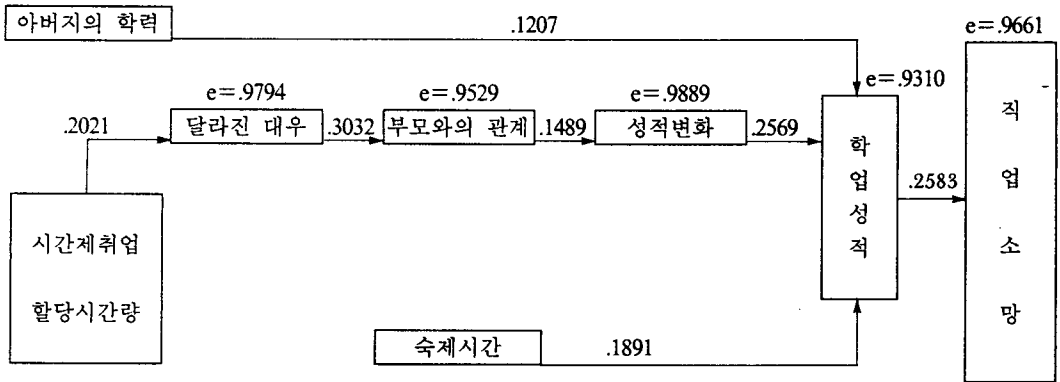


그림 2.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직업소망 경로모델.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변인들중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변인들로는 학교를 즐기는 정도($r=.196$), 숙제를 하는 데 소비하는 시간량($r=.194$), 아버지의 교육정도($r=.191$), 성적변화($r=.175$) 등이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고 시간제취업을 위하여 소비하는 시간과는 유의한 부적상관($r=-.162$)을 나타내었다.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와는 취미를 위한 독서시간량($r=.155$)과 직업의 특성($r=.219$)이 예상대로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량은 학교를 즐기는 정도($r=-.113$)와 숙제를 하는 시간량($r=-.106$) 그리고 취미를 위한 독서시간량($r=-.078$)과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부모들의 달라진 대우($r=.175$)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부모들의 달라진 대우와 부모들과의 관계($r=.256$), 부모들의 관계와 성적변화($r=.111$)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냈다.

표 3은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를 통하여 남학생의 직업소망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변인으로는 평균성적을 제외한 아버지의 교육정도, 어머니의 직업수준 및 사회적 개방태도임을 알 수 있고 그중에서도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가장 영향력이 강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위의 세 변인이 남학생의 직업소망에 대한 분산의 8.8%를 설명하고 있다(표 3). 또한 표 3에서 보여주듯이 직업소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개방태도를 예측하는데 쓰이는 독립변인들로는 직업특성과 취미를 위한

표 3. 중다회귀분석표 : 남학생

종속변인	사회적 개방태도		직업소망	
	b	B	b	B
취미독서	.3544	.1261*		
직업특성	.7214	.2125***		
아버지의 교육정도			2.3458	.1572*
어머니의 직업			.1990	.1904**
사회적 개방태도			1.3264	.1597*
상수	8.6167		20.5000	
수정 결정계수	.0575		.0880	
F	10.6376***		8.5873***	

* $p<.05$ * $p<.01$ *** $p<.001$

독서시간량으로 이 두 변인은 사회적 개방태도에 대한 분산의 5.8%를 설명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남학생의 직업소망을 위한 경로모델이 그림 3에 나타나 있다.

V. 결론 및 논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주안점으로 하여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직업소망을 경로분석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남학생의 경로와 여학생의 경로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족배경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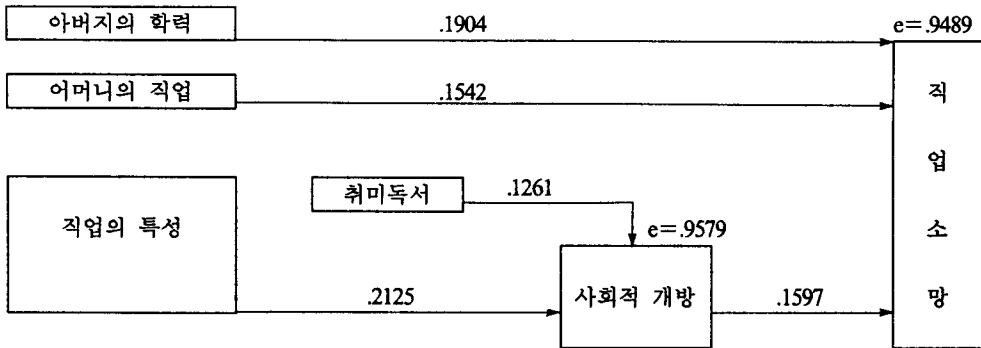


그림 3. 고등학교 남학생들의 직업소망 경로모델.

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아버지의 교육정도와 어머니의 직업수준이 남학생의 직업소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변인들임에 반하여, 여학생의 직업소망에는 아버지의 교육정도만이 여학생의 학업성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학생의 직업소망이 여학생의 경우보다 가족배경변인들에 의해 더욱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Marini등(197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특히 남학생의 경우에는 가족배경변인들이 직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과 같이 직업소망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점으로 미루어 직업소망이 직업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가족배경변인들이 직업소망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인들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회의 가치체계가 아직은 여학생으로 하여금 사회내에서 높은 지위를 소망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덜 또는 아주 권장하지 않고, 이에 따라 여학생이 본인의 가족배경변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족배경변인들은 여학생의 직업소망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으나, 학업성적은 여학생의 직업소망을 자극하여 격려하는 원인을 제공한다. 여학생의 경우 학업성적이 그들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변인임이 밝혀졌다. 그러한 사실은 여학생이 높은 지위의 직업이 주로 남성에 의해서 점유된다는 현존 사회의 통념과 실제 점유되고 있는 현실에 도전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여학생은 자신들에 대한 사회의 기대가 남학생과 다르다는 것을 일찌부터 배우고, 이로부터 자기자신을 남학생과 대등한 기대주로 자기매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한다는 사실도 아울러 깨닫게 되었다. 학생신분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높은 학업성적을 유지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학업성적은 여학생의 직업소망에 강력한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밝혀졌고 이것의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Fortner, 1970 ; Hout & Morgan, 1975 ; Sewell 등, 1957)을 지지하는 것이다.

학업성적이 남학생의 경우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있어서 직업을 갖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여학생의 경우 남성 선호적인 기존의 사회통념을 넘어서서 자기정립적인 직업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같은 직업소망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는 좋은 학업성적이라는 별도의 강점이 요청되는 반면, 남학생의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좋고 나쁨이 미래의 직업을 계획하고 획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여학생의 경우 시간제취업에 종사하는 시간은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학업성적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접적으로는 높은 직업소망을 갖게 한다. 가족배경변인들보다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관련된 변인들이 직업소망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

구결과는 청소년기의 여학생이 남학생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Gilligan(1982)의 주장을 상기하게 한다.

남학생의 경로모델에는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가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남학생의 일에 대한 사회적 개방태도는 취미독서 시간량과 직업특성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제취업에 할당하는 시간량이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포함되지 않고 직업의 특성이 남학생의 직업소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시간제취업에 더욱 익숙해 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렇기에 남학생은 직업소망을 형성함에 있어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는 시간제취업에서 얻는 현장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다 나은 후속연구를 위한 몇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본 연구가 직업소망에 관련된 중요한 변인들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만큼, 향후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장래계획이라든가 여학생의 경우라면 결혼계획과 결혼을 한 후 그들의 취업계획 등과 같은 변인들을 추가적으로 배려한다면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관한 보다 총체적인 이해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둘째, 직업소망의 문제를 직업지위의 측면에서만뿐만 아니라 성역할 분화의 관점에서도 검토해봄으로써 성별에 의한 직업소망의 차이를 보다 다양한 시선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전망이 생기게 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때 청소년의 직업소망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 역시 사뭇 다르게 나타나리라는 예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미국의 농촌 고등학교 학생들인데다가 인종적으로는 주로 백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를 그대로 일반화하는 데는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에 대한 제약요소들의 극복을 위해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견실하고 보편성 있는 연구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1) Archer, S.L.(1985). Career and/or family : The identity process for adolescent girls. *Youth & Society* 16, 289-314.
- 2) Banducci, R.(1967). The effect of mother's employment on the achievement,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the child.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46, 263-267.
- 3) Blau, P.M. & Duncan, O.D.(1967). *The American occupational structure*. New York : Wiley.
- 4) Bowles, S. & Gintis, H.(1976). *Schooling in capitalist America*. New York : Basic.
- 5) Bucknam, R.B.(1976). The impact of EBCE : An evaluator's viewpoint. *Career Educational Journal* 33, 32-37.
- 6) Card, J.J., Steel, L. & Abeles, R.P.(1980). Sex differences in realization of individual potential for achieve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7, 1-21.
- 7) Clifford, D.M.(1992). *Gender-based differences in high school employment : Is there differential socialization for work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Greensboro.
- 8) D'Amico, R.(1984). Does employment during high school impair academic progress? *Sociology of Education* 57, 152-164.
- 9) Farmer, H.S.(1983). Career and homemaking plans for high school you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0-45.
- 10) Fortner, M.L.(1970). Vocational choices of high school girls : Can they be predicted?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18, 203-206.
- 11) Gade, E. & Peterson, L.(1980). A comparison of working and nonworking high school students on school performance, socioeconomic status, and self-esteem.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9, 65-69.
- 12) Garrison, H.H.(1979). Gender differences in the career aspirations of high school seniors. *Social Problems* 27, 170-185.

- 13) Gordon, M.M.(1978). *Human nature, class, and ethnicity*.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 14) Gottfredson, D.C.(1985). Youth employment and work related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50, 3754-A.
- 15) Greenberger, E.(1983). A researcher in the policy arena : The case of child labor. *American Psychologist* 38, 104-111.
- 16) Greenberger, E. & Steinberg, L.(1983). Differences in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 Harbinger of things to come. *Social Forces* 62, 467-486.
- 17) Greenberger, E., Steinberg, L., Vaux, A. & McAuliffe, S.(1980). Adolescents who work : Effects of part-time employment on family and peer relation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189-202.
- 18) Haller, A. O. & Portes, A.(1973). Status attainment processes. *Sociology of Education* 46, 51-91.
- 19) Hamilton, S. F. & Crouter, A.C.(1980). *Work and growth : A review of research on the impact of work experience on adolescent develop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9, 323-338.
- 20) Hay, J. F. & Lindsay, C.A.(1969). The working students-How does he achieve ? *Journal of College Students Personnel* 10, 109-114.
- 21) Hotchkiss, L.(1986). Work and schools : Complements or competitors ? In K. Borman & J. Reisman, (Eds.), *Becoming a worker*, Norwood, MJ. : Ablex.
- 22) Hout, M. & Morgan, W.R.(1975). Race and sex variations in the causes of the expected attainments of high school senior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364-394.
- 23) Howell, F. M. & Frese, W.(1982). *Making life plans : Race, gender and career decisions*. Washington, D.C.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24) Mangum, G. & Walsch, J.(1977). Employment and training programs for youth : What works best for whom ? U.S. Department of Labor,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25) Manning, W.(1990). Parenting employed teenagers. *Youth & Society* 22, 184-220.
- 26) Marini, M.M. & Greenberger, E.(1978). Sex differences in Occupational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Sociology of Work and Occupations* 5, 147-178.
- 27) Mortimer, J.T., Finch, M.D., Owens, T.J. & Shanahan, M.(1990). Gender and work in adolescence. *Youth & Society* 22, 201-224.
- 28) Otto, L.B., Haller, A.O., Meier, R.F. & Ohlendorf, G.W.(1974). An empirical evaluation of a scale to measure occupational aspiration lev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5, 1-11.
- 29) Peters, J.F.(1987). Youth, family, and employment. *Adolescence* 22, 465-473.
- 30) Phillips, S. & Sandstron, K.L.(1990). Parental attitudes toward youth work. *Youth & Society* 22, 160-183.
- 31) Rosen, B.C. & Aneshensel, C.S.(1978). Sex differences in the educational-occupational expectation process. *Social Forces* 57, 164-186.
- 32) Schill, W.J., McCartin, R. & Meyer, K.(1985). Youth employemtn : Its relationship to academic and family variabl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6, 155-163.
- 33) Schulenberg, J., Goldstine, A.E., Vondracek, F.W. (1991).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career interests : Beyond main effec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 37-61.
- 34) Sewell, H.W., Haller, A.O. & Straus, M.A.(1957).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67-73.
- 35) Shapiro, D. & Crowley, J.E.(1982).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youth in the United States, part 2 : Employment activity. *Youth and Society* 14, 33-58.
- 36) Steinberg, L.D.(1982). Jumping off the work experience bandwago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183-205.
- 37) Steinberg, L.D., Greenberger, E., Garduque, L. & McAuliffe, S.(1982). High school students in the labor force.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 363-372.
- 38) Steinberg, L. D., Greenberger, E., Garduque, L., Ruggiero, M. & Vaux, A.(1982). Effects of working on adolescent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18, 385-395.

- 39) White, L.K. & Brinkerhoff, D.B.(1981). The sexual division of labor : Evidence from childhood. *Social Forces* 60, 170-181.
- 40) Yamoor, C.M. & Mortimer, J.T.(1990). Age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employment on adolescent achievement and well-being. *Youth & Society* 22, 225-240.